전업주부, 학예사 꿈 이루다

48세 황유정씨 치열한 경쟁 뚫고 광주시립미술관 첫 출근

어떤 이는 그저 꿈만 꾸지만, 어떤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다. '아줌마가 집에서 빨래나 하지'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전업주부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학예연구사가 됐다.

지난 19일 오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전시실에서 만난 학예연구사 황유정(48)씨가 주인공이다. 이날 첫 출근한 황씨는 업무파악할 시간도 없이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설명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학예연구사'란 당당한 직함을 얻기 까지 그녀는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전남대학교 생물교육과를 졸업한 그녀가 미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2002년. 우연히 미술사 강의를 들으면서부터다.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에 세월 가는 줄 모르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정체성에 회의를 품게 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가 된 황유정씨가 19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물학도서 변신 10년간 열정적 미술 공부

"주부 정체성 담은 전시회 기획 감동 주고파"

마침 광주시립미술관의 현대미술강좌는 황씨에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 미술에 문외한이었지만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기로 한 그녀는 이내 '예술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30대에는 30대의 삶이 주어지고, 40대에는 40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패턴'이 싫었습니다. 나를 나답게 할 수 있는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하루 하루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백화점 세일 기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평범한 아줌마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공부였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도서관으로 달려가 전시이론, 박물관학 등 미술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독학으로 1년 만에 학예연구사 자격증인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했고 , 10대 1의 경쟁을 뚫고 광주시립미술관 실무연수과정(학예연구사 인턴)에도 합격했다. 또 2004년에는 조선대 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미학과 미술사를 공부했으며 우제길미술관 등에서 실무도 배웠다.

"학부 전공이 달라 남들보다 열 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리다 보니 '누구의 엄마'가 아닌 '황유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공부를 하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보더군요. 최고의 과외는 책읽는 부모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립미술관 공채도 쉽지는 않았다. 해외 유학파 등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7명의 30대 초반 젊은이들과 경쟁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학예사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경쟁자들 보다 뛰어나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미술관 관람객 대부분이 주부입니다. 이들이 편하게 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 주부들의 정체성을 담은 전시회를 기획해 울림과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문단 이끌 창작의 산실로"

윤삼현 신임 광주일보 신춘문학회장

"제 문학의 탯자리인 광주일보 신춘문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어 책무가 무겁습니다. 회원들의 참여 의지를 북돋우고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창작의 산실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윤삼현(57·사진)씨는 "문학회가 더욱 명성 있는 단체로 발전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고양시켜 적극적인 소통의 장(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광주일보 신춘문학회는 지난 1995년 결성된 이후 150여 명의 회원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문집 '금남로 가는 길'을 내고 있다.

윤 회장은 "문학회의 발전을 위해 우선 모임이나 토론회의 횟수를 늘려 회원 참여를 배가하고, 문집 '금남로 가는 길'의 참여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1년에 1~2회 정도 회원들의 동정과 문학계 소식을 담은 정기 회보를 발간한다는 복안이다. 또 소속감과 창작의 욕을 높이기 위해 문집의 볼륨도 키울 계획이다.

이어 윤 회장은 "문학회는 선·후배간 격려와 존경, 믿음으로 운영해 가는 곳"이라며 "회원 전원이 한마음이 되어 활력 넘치는 창작의 공간,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뻥튀기'라는 동시로, 1988년에는 동화 '달을 타고 온 동이'로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으며 지금까지 시집 '유채꽃 풍경'과 '엄마 휘파람새', '겨울새', 시조집 '뻐꾹새를 따라가다', 동화집 '눈사람과 사형수'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현재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과 한국동시문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광주 율곡초등학교에 재직하며 순천대와 광주교대에 출강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안문화공간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월 1회 독립영화 정기 상영

28~30일 '샘터분식'

대안문화공간 컬처클럽 네버마인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기적으로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었다.

광주 대인시장 건너편에 새롭게 둥지를 튼 후 소극장으로 단장한 컬처클럽 네버마인드가 다시 '안녕? 독립영화! 시즌2'를 시작한다. 광주에서 미개봉된 독립장편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상영회는 한달에 한편씩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오는 28일~30일(오후 5시30분, 7시30분) 열리는 1월의 상영영화는 태준식 감독의 '샘터분식'〈사진〉이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인디다큐페스티벌 등에 공식 초청된 '샘터분식'은 20대 힙합 뮤지션 제리 케이, 민중의 집 활동가 안성민, 샘터 분식집 사장 최영임씨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29일 영화 상영 후에는 힙합밴드 '수트케이스'의 공연이 열리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태준식 감독의 '0506 기로에서 돌아보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DVD도 증정한다. 한편 네버마인드는 독립영화 상영을 도울 자원활동가와 회원도 모집한다.

티켓 가격 5천원. 문의 010-7171-00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춘추' 겨울호 출간

다형 김현승 특집·김창환씨 등 신인상

한림문학재단(이사장 박형철)에서 발행하는 문학전문지 '문학춘추' 2009 겨울호(통권 69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의 특집으로는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다형 김현승(1913~1975)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다뤘다. '제1회 다형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됐던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의 '다형 김현승의 문학사적 위상'과 이성부 시인의 '김현승 선생과 그의 제자들' 등이 실렸다. 또한 1950년대 수필가이며 교육자, 한글학자로 활동했던 소청 조희관 선생의 발자취를 수필가 김수기씨가 조명한 글도 소개됐다.

또 최호림, 손순이, 박영선, 김흥복, 김여울, 임신행 등 40여 명의 시, 동시, 동화, 수필, 동화 작품도 실었다.

제67회 신인작품상 수상자인 김창환(사진), 박철수씨의 시와 박철민씨의 시조, 강성권씨의 동시 당선작이 실렸으며 윤삼현 시인, 평론가 양수창씨의 작품평도 게재됐다. 문의 062-226-18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익정 작 '좋으면 모여든다'

묵향 그윽한 서예의 아름다움

이묵회 단체전 21~25일 광주 무등갤러리

묵향 그윽한 서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예 작가들의 모임인 이묵회(회장 박익정)는 21~25일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15번째 단체전을 연다.

이묵회는 서예가 담헌 전명옥씨로부터 글씨를 배운 제자들의 모임. 이번 전시회에는 김동현, 김종렬, 서현희, 송홍범, 오향균, 정무남, 정안숙씨 등 회원 29명이 참가해 다양한 글씨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글씨체와 그림을 결합한 작품과 다양한 색을 입혀 서예의 단조로움을 피한 작품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문의 062-225-533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